

# 한 · 중 · 일 3국의 비교우위 패턴 변화 특징 및 시사점

정 형 곤 국제개발협력센터 동아시아협력팀장 선임연구위원 (hgjeong@kiep.go.kr, Tel: 3460-1127)  
 방 호 경 국제개발협력센터 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위원 (bassgu@kiep.go.kr, Tel: 3460-1126)

1. 서론
2. 한·중·일 3국의 대외수출구조 변화
3. 한·중·일 3국의 비교우위 추이 및 패턴 변화 특징
4. 정책 시사점



## 주요 내용

- ▶ 본고는 최근 한·중·일 3국 간 양자 혹은 다자간 FTA 논의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3국의 비교우위 변화 및 특징을 파악,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① 수출상관계수를 이용하여 3국의 수출구조 유사성을 파악하였으며, ② 각국의 비교우위 품목 패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세부품목별 RCA에 근거하여 다섯 가지 그룹 군으로 구분한 후 추이를 살펴봤음.
- ▶ 한·중·일 3국의 수출 상관계수 분석결과, 중국과 일본의 수출구조보다는 한·일 및 한·중 간 수출구조의 유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외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압박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임.
- ▶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는 특징을 보임.
- 이 품목군의 중국 수출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중국 수출확대가 한국 비교우위의 원인 중의 하나로 분석됨.
- ▶ 한·중·일 혹은 3국 양자 간에 비교우위가 지속되는 품목에서 동일품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3국의 분업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3국 간 무역특징에 따른 우리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경쟁적 측면

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보완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 ▶ 당분간 3국의 비교우위 변화 추세는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의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각 비교우위 품목군별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군(제1품목군 및 제2품목군)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부품과 소재분야의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중·일 3국 간 기술표준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 제3품목군의 경우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변한 원인을 파악한 후 이들 품목의 경쟁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산업별·품목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와 업계별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제품 차별화 전략 혹은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제4품목군은 비교열위 지속품목군으로 제3품목군에서와 같이 제품 차별화 혹은 해외진출 등을 추진하되, 한국의 장기 산업정책과 연계시킨 산업구조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FTA 등을 통한 관세철폐는 역내 수출시장에서 우리의 비교우위 지속품목군의 가격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임.

# 1. 서론

■ 1990년대 이후 한·중·일 3국이 전 세계 수출 및 수입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중이 빠르게 확대되어가고 있음.<sup>1)</sup>

- 1988년~2008년 동안 13.0% 및 9.9%에서 16.4% 및 14.3%로 늘어났음.
- 연평균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각각 21.6% 및 23.0%씩 증가한 수치로, 수출보다 수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음.

■ 한·중·일 3국의 대외무역이 빠르게 늘어난 원인은 중국의 급성장에 의한 것임.

- 중국은 1990~2009년 동안 연평균 9.7%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 중국의 대외수출 규모는 1992년에 한국을 추월한 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음.
- 또한 중국은 2007년에 미국을 앞질렀고, 2009년에는 독일마저 추월하여 세계 제1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음.<sup>2)</sup>

■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중 무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간 비교우위에도 영향을 미쳐 상품 교역구조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

- 본고는 최근 한·중·일 FTA, 한·일 FTA, 한·중 FTA 등 논의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한·중·일 3국 간의 비교우위 변화 및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FTA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한·중·일 3국의 대외수출구조 변화

■ [표 1]~[표 3]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3)에 기초하여 1990년대 초반과 최근 한·중·일 3국의 10대 수출산업의 변화를 나타낸 것임.

■ 최근 한국 수출의 주요 특징은 코크스, 석유정제품이 주요 10

대 수출 품목으로 등장하고, 섬유제조업과 의복 및 모피제품의 수출이 주요 10대 수출 품목에서 사라진 것임.

- 한국의 수출에서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20%를 차지하여 여전히 한국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위치를 점하고 있고,
- 중국 및 일본과는 달리 석유 정제품 제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임.

표 1. 한국의 수출구조 변화

(단위: %)

ISIC	A	ISIC	B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0.9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0.4
섬유제품 제조업	1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8.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0.6
자동차 및 트레일러	7.6	기타기계 및 장비	8.1
1차 금속	7.4	기타운송장비	7.9
기타기계 및 장비업	6.2	1차 금속	7.5
기타운송장비	6.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7.0
의복 및 모피제품	4.3	의류, 장발, 광학기기 및 시계	6.0
전자기계 및 장비	4.2	사무용 기계	4.8
사무용 기계	4.1	전자기계 및 장비	3.8

주: A(1992~1996년), B(2005~2008년).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

■ 중국도 같은 분석기간 동안 수출산업구조가 의복 및 섬유제품에서 전자전기 및 기계 장비로 빠르게 변화하여 왔음.

- 최근 중국의 대외수출에서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사무용 기계 제조업과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반면 의복 및 모피제품과 섬유제품 제조업의 수출비중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

표 2. 중국의 수출구조 변화

(단위: %)

ISIC	A	ISIC	B
의복 및 모피제품	14.9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5.8
섬유제품	13.0	사무용 기계	12.6
가구 및 기타	7.5	기타기계 및 장비	8.7
가죽, 가방 및 신발	7.1	섬유제품	7.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6.7	의복 및 모피제품	7.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8	전자기계 및 장비	5.9
음식료품	5.5	가구 및 기타	5.7
전자기계 및 장비	4.4	1차 금속	5.6
기타기계 및 장비	4.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3
농축산업	3.6	금속가공제품	3.7

주: A(1992~1996년), B(2005~2008년)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

1) WTO International Trade Database.

2) WTO International Trade Database.

- 일본의 수출구조는 한국과 중국에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분석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대외수출에서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 및 중국과는 달리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이 일본의 10대 수출산업으로 포함되는 것이 특징임.

표 3. 일본의 수출구조 변화

		(단위: %)	
ISIC	A	ISIC	B
자동차 및 트레일러	20.8	자동차 및 트레일러	22.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5.8	기타기계 및 장비	16.0
기타기계 및 장비	14.7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2.3
사무용 기계	8.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9.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7.8	1차 금속	7.1
전자기계 및 장비	5.9	기타	5.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4.9	전자기계 및 장비	5.5
1차금속 제조업	4.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5.3
기타 운송장비	4.3	기타 운송장비	4.1
고무 및 플라스틱	2.1	고무 및 플라스틱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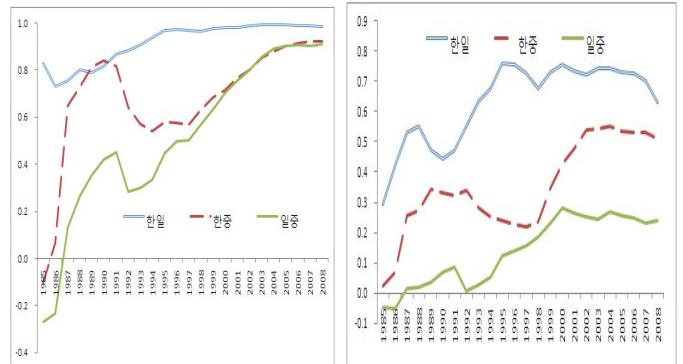
주: A(1992~1996), B(2005~2008).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Online].

- 앞의 표에서처럼 분석대상기간 동안 한·중·일 각국의 수출 구조에 있어서는 중국이 가장 많이 변화하였고,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 순으로 나타남.
- 한·중·일 3국 간 수출구조의 유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OECD<sup>3)</sup>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관계수 개념을 이용하여 한·중, 한·일, 중·일 간 수출구조의 상관계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그림 1]에서와 같이 한·중·일 3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하게 변화하여 왔음을 확인하였음.
- 산업을 SITC 3단위로 보다 세분화시켜 양국 간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에서도 SITC 1단위보다 상관계수 값은 작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는 3국의 수출산업구조가 비슷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3국 간 산업 내 분업이 강화됨과 동시에 대외시장에서 3국 간 경쟁도 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함.
- 특히 한·중, 한·일의 상관계수가 더 높아 중국과 일본의 수출구조보다는 한·일 및 한·중 간 수출구조의 유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고).<sup>4)</sup>

- 3국의 기술수준별 무역에 대해 살펴본 기존 연구<sup>5)</sup>를 참고하면, 이는 대외시장에서 기술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의 경우 일본과 경쟁관계, 기술집약도가 낮은 품목은 중국과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1. 한·중, 한·일 및 중·일 간 수출구조의 상관계수 추이  
 - SITC 1단위 -  
 - SITC 3단위 -



주: SITC 품목 코드에 기초하여 연도별 상관계수를 구한 것임.  
 자료: [부표 13].

- 따라서 향후 한·중·일 3국 간 수출구조는 상호협력에 따른 수직 및 수평적 분업이 더욱 강화되면서 대외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압박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다음 절에서는 한·중·일 3국의 세부품목별 비교우위 추이와 패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3. 한·중·일 3국의 비교우위 추이 및 패턴 변화 특징

#### 가. 분석 방법

- HS 6단위<sup>6)</sup>(5,225개) 상품분류를 이용하여 RCA<sup>7)</sup> 결과 값에 따라 다섯 가지 그룹군으로 구분함.

- 4) 연도별 수출상관계수 수치는 [부표 13]에 제시되어 있음.
- 5) 국제무역연구원(2008), 『한·중·일 3국의 기술수준별 무역구조 분석』.
- 6) HS 6단위 상품분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세분된 기준임.
- 7) RCA지수는 각국의 비교우위 체제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RCA가 1보다 크면 해당국가의 k 품목이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RCA_{iw}^k = \frac{X_{iw}^k / X_{iw}}{X_{ww}^k / X_{ww}}$$

3) OECD(2009), *Trans-border Urban Cooperation in the Pan Yellow Sea Region*.

- 본 연구는 ① 1992~96년, ② 2000~04년, ③ 2005~08년으로 구분<sup>8)</sup>한 후, 이들 각 기간을 대상으로 3국의 HS 6단위<sup>9)</sup> 기간별 평균 무역자료를 구축하였음.<sup>10)</sup>

■ 이렇게 구축된 무역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RCA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고자 함<sup>11)</sup>

- 1품목군: 비교우위 지속 품목군(①, ②, ③ 모두에서  $RCA \geq 1$ )
- 2품목군: 비교열위→비교우위 전환 품목군(①  $RCA < 1$  => ③  $RCA \geq 1$ )
- 3품목군: 비교우위→비교열위 전환 품목군(①  $RCA \geq 1$  => ③  $RCA < 1$ )
- 4품목군: 비교열위 지속 품목군 (①, ②, ③ 모두에서  $RCA < 1$ )
- 5기타 품목군: 현 단계에서 추세를 평가하기 힘든 품목군 (② 기간에서 이질적 특징을 보이는 품목군)

나. 한·중·일 3국의 대외수출 비교우위 추이 및 패턴 변화

■ 한·중·일 3국의 RCA 지수를 구한 결과 분석대상기간 동안 비교우위품목이 총수출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과 일본은 감소추세, 중국은 증가추세를 보임(표 3 참고).

- 1992~96년에 한국의 비교우위품목은 1,834개로 총수출품목의 38.4%를 차지하였으나, 2006~08년에 1,623개(34.8%)로 감소하였음.
- 중국은 1992~96년에 총수출품목의 56.4%인 2,816개가 비교우위를 보였으나 2006~08년에 3,118개(64.6%)로 증가하였음.
- 일본은 1992~96년 및 2006~08년 동안 각각 2,211개

(45.6%)에서 2,064개(43.6%)로 감소하였음.

표 3. 한·중·일의 대세계 비교우위 추이 (단위: 개수)

	기간	한국	중국	일본
품목 개수	1992~96	1,834	2,816	2,211
	2000~04	1,801	2,894	2,111
	2006~08	1,623	3,118	2,064
수출 비중	1992~96	95.7	94.7	96.9
	2000~04	95.7	95.0	96.9
	2006~08	96.0	94.7	95.7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 3국 모두 비교우위품목이 90%이상으로 총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비교우위품목에서 감소하고 있으나 수출비중은 오히려 확대(표 3 참고).

- 한국의 총수출에서 비교우위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분석대상기간 동안 95.7%에서 96.0%로 증가하였음.
- 이는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 품목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함.
- 중국은 94.7%, 95.0% 및 94.7%로 큰 변화 없음.
- 일본은 96.9%에서 95.7%로 감소하였음.

■ 이처럼 분석대상기간 동안 한·중·일 3국의 비교우위 품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바, 비교우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 한·중·일 3국의 비교우위패턴 변화 특징

■ 한·중·일 3국 중 분석대상기간 동안 비교우위가 꾸준히 지속되는 품목군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가장 적게 나타남(그림 3 참고).

- 한국은 1품목군에 해당되는 비교우위 지속 품목군이 1,046개로 중국(2,195개) 및 일본(1,694개)에 비해 적은 개수를 보임.
- 반면 한국은 4품목군에 해당되는 비교열위지속 품목군이 2,444개로 중국(1,311개) 및 일본(2,350)에 비해 많음.

■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된 품목군(제2품목군)은 3국

8) 1997년부터 1999년의 통계는 외환위기로 인해 예외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외함.  
 9) HS 코드는 1992, 1996, 2002, 2007 등 총 4개의 버전으로 구분되어 있음. 본 연구의 분석기간을 고려하여 HS 1992 버전을 사용하고 있음.  
 10) 기간별 평균자료의 구축은 거시자료를 이용한 분석 시 추세를 벗어나는 특정연도를 통제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임.  
 11) Hillman(1980); Yeats(1985) 등에 따르면 ① RCA 지수의 비대칭성, ② 세계수출비중이 작은 국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수를 산출하는 특징 때문에 RCA 지수의 크기를 단순히 국가간 혹은 연도별 비교 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본고는 도출된 RCA 지수의 크기에 기초하여 연도별 비교와 3국 간 비교를 하지 않고 있음. 최근 이러한 RCA의 단점을 해소하고자 NRCA(Normalized RCA)가 제안된 바 있음.

중에서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순으로 나타남.

- 중국은 최근 들어 총수출품목의 16.7%에 해당되는 838개의 품목이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바뀌었음.
- 한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522개 및 321개가 비교우위로 전환되었음.

■ 한국은 비교우위로 전환된 품목(2품목군)보다 비교열위로 전환된 품목(3품목군)이 더 많았음.

-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된 품목은 733개로 총수출품목의 14.9%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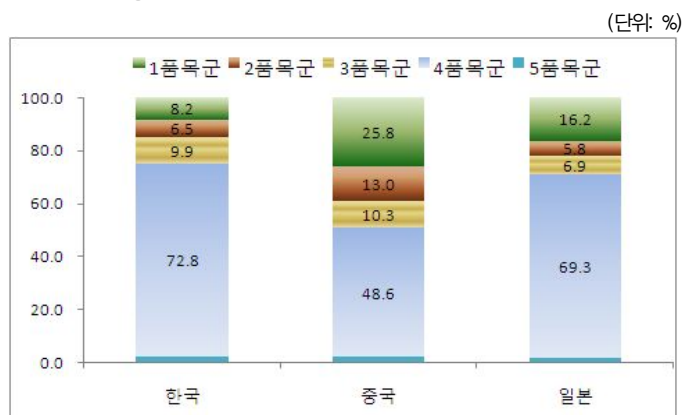
■ 중국은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된 품목(2품목군)도 많았지만,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된 품목(3품목군)도 상대적으로 많았음.

- 비교우위품목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된 품목은 536개로 총수출품목의 10.7%를 차지하였음.
- 그러나 중국의 경우 비교열위로 전환된 품목보다 비교우위로 전환된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였음.

■ 일본은 3국 중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된 품목(2품목군)이 가장 적음.

■ 앞서 언급한 비교우위 변화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우리의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림 3. 한·중·일의 대세계 비교우위 패턴 변화



주: 1품목군(비교우위 지속), 2품목군(비교우위 전환), 3품목군(비교열위 전환), 4품목군(비교열위 지속), 5품목군(기타 품목군).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라. 한·중·일 3국의 비교우위 패턴 변화의 산업별 특징

■ 한·중·일 3국의 비교우위 지속 품목군을 보면 한국과 중국은 섬유제품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일본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비교우위 품목수를 보임.<sup>12)</sup>

- 한국은 섬유제품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에서 각각 179개 및 170개로 이 품목군의 33.4%를 차지함.

- 앞의 [표 1]을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은 10대 수출산업에서 빠져있으나 비교우위 패턴 변화에서는 한국의 비교우위 지속 품목군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섬유산업이 꾸준히 비교우위를 보유하고는 있으나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크게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 중국은 섬유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에서 각각 405개, 319개로 33.0%를 차지함.

- 일본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에서 각각 386개와 314개로 41.4%를 차지함.

■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된 품목도 한·중·일 3국 모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발생하였음.

-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은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과 1차 금속제조업 등에서, 일본은 섬유제품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이 비교우위로 전환되었음.

- 한국은 전자기계 및 장비제조업과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이 비교우위로 바뀌었음.

- 중국은 기술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과 전자기계 및 장비제조업에서도 최근 들어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주목됨.

■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된 품목은 한국의 경우 의복 및 모피제품과 섬유제품 제조업에서, 중국과 일본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 등에서 이루어졌음.

- 이외에도 한국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최근 들

12) 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HS 1992버전과 ISIC 코드를 연계시킨 후 계산하였음.

- 어 비교열위로 전환된 품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은 음식료품 제조업과 농축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된 품목이 비교적 많았음.
- 일본은 기타기계 장비제조업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의 비교우위 지속 품목군(1품목군)은 전반적으로 중국의 수출증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비교우위 지속 품목군의 대중 수출비중은 한국의 대외 총교역에서 4.0%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10.6%, 2008년에 21.0%로 크게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 1992~2008년 동안 이 품목군의 대중 수출은 연평균 23.7%를 시현한 반면, 대세계 수출은 12.1%를 기록함.<sup>13)</sup>

- 한국의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된 품목군(2품목군)도 한국의 대중 수출증대에 따라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 이 품목군(2품목군)의 대중 수출비중은 한국의 대외 총교역에서 9.1%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17.0%, 2008년에 24.8%로 크게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된 품목(3품목군)은 대부분 중국의 비교우위 지속 품목(1품목군)임.
-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된 품목은 733개로 이 품목 중 중국이 비교우위를 지속하고 있는 품목군은 521개(71.0%)임.
- 주목되는 특징은 한·중·일 3국 모두 분석대상기간 동안 비교우위가 지속되는 동일한 품목이 295개가 존재하며, 이 품목군은 중간재라는 것임.
- 특히 한국과 중국 간에 비교우위가 지속되는 동일한 품목은 572개, 일본과 중국 간에는 708개로 조사되고 대부분 중간재 품목임.

13) 이 품목군의 수출증가에서 중국의 기여도는 5.6으로 높게 나타남. 해당국가의 기여율에 증가율을 곱하면 기여도가 되는데 이는 각 국가 전체 증가율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의미함.

- 한국의 총수출에서 한국과 중국 간 비교우위가 지속되는 품목의 중국 수출비중은 20.6%(2008년)로 높은 점유율을 보임.
- 전통적 국제무역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경쟁국의 수출 경쟁력 증가는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그림 1]을 통해 한·중·일 3국의 수출구조가 빠른 속도로 유사하게 변화해 온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이는 3국 간에 경쟁보다는 동종 산업 내 분업을 통해 비교우위를 심화시켜왔음을 의미함.
- 한·중·일 3국 간 무역은 활발한 중간재 교역을 통해 생산된 최종재를 역외지역으로 수출하는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최종재 수출의 증가는 역내 중간재 교역을 확대시키는 구조임.<sup>14)</sup>
- 이는 한 국가의 대외수출 경쟁력 강화가 역내 다른 국가의 수요를 재창출하는 구조임을 의미함.

#### 4. 정책 시사점

- 본고는 한·중·일 3국 간의 비교우위 변화 및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FTA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① 수출상관계수를 이용하여 3국의 수출구조 유사성을 파악하였으며, ② 각국의 비교우위 품목 패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세부품목별 RCA에 근거하여 다섯 가지 그룹군으로 구분한 후 추이를 살펴봤음.
- 한·중·일 3국의 수출 상관계수 분석결과, 3국 간 수출상관계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으며 중국과 일본보다는 한·일 및 한·중 간 수출구조의 유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한국의 수출산업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일본 및 중국의 수출산업과 분업이 심화됨을 의미하고, 동시에 대외수출 시장에서 3국 간 경합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는 특징을 보임.

14) 한·중·일 3국 간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1995년의 54.1%에서 2008년에 63.0%로 더욱 확대됨.

-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군의 중국 수출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중국 수출 확대가 한국 비교우위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분석됨.
- 한·중·일 혹은 3국 양자 간에 동일품목에서 비교우위가 지속되는 품목군이 많은데 이는 3국의 분업구조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
- 즉 한·중·일 3국은 상호간 중간재 교역을 통해 생산된 최종재를 미국, 유럽 등 제3국 시장에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한·중·일 3국 간 무역특징에 따른 우리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역내 국가간에 긴밀히 구축되어 있는 생산구조를 고려해야 함.
- 당분간 한·중·일 3국의 비교우위 변화 추세가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의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각 비교우위 품목군별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군에 해당되는 제1품목군 및 제2품목군이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들 품목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에서 상당부분이 중간재이며 중국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핵심 부품과 소재분야의 차별성 유지가 필요함.
- 또한 부품의 규격차이와 인증제도의 차이로 인한 부품의 비호환성은 3국 간에 구축되어 있는 생산구조를 원활히 작동하는데 장애요인임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한·중·일 3국 간 기술표준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sup>15)</sup>
- 제3품목군의 경우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변한 원인을 파악한 후 이들 품목의 경쟁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산업별·품목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와 업계별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한편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는 국내 생산비용을 고려할 경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생산기업은 원가 절감대신에 디자인, 품질, 브랜드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제품 차별화 전략에 나서야 함.
-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된 품목 중 생산비용 등 가격 경쟁력 악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품목은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sup>16)</sup>
- 제4품목군은 비교열위 지속품목군으로 제3품목군에서와 같이 제품 차별화 혹은 해외진출 등을 추진하되,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재생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FTA 등을 통한 상호간 관세철폐는 중국과 일본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우리의 비교우위 지속 품목군의 가격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비교우위 지속 품목군(제1품목군) 및 비교우위 전환 품목군(제2품목군)을 대상으로 중국의 관세수준<sup>17)</sup>을 계산해본 결과 이들 품목에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세철폐 시 수출확대가 기대됨<sup>18)</sup>
- 제1품목군에 부과되고 있는 단순평균 관세율은 9.0%(최소: 0%, 최대 50%)정도이고, 제2품목군에는 대략 7.9%(최소: 0%, 최대 35%)로 나타남.
- 특히 최근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이 대만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였고, 중국은 대만에 539개 품목(HS 8단위)을 조기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음. 중국이 대만에 양허한 품목과 한국의 대세계 비교우위 품목군(제1품목군 및 제2품목군) 간에 상호 중복되는 품목이 있는지 살펴

15) 2009년 11월 제8차 동북아 표준 협력포럼에서 3국은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16) 우리 정부는 기업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 통합정보 및 컨설팅 기능강화, 2)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정비, 3) 패키지 성공모델 확산을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17) 중국 관세율(2008년)은 TRAINS에서 제공하는 실효실질관세율(The effectively applied tariff rate)를 이용하고 있고, 비교우위 패턴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HS 2007 버전을 HS 1992버전으로 변환시킨 후 이용하고 있음.

18) 그러나 이들 품목군의 대부분이 중간재 품목임을 고려할 때 관세환급이 이루어지는 품목이 있을 수 있어 실행관세는 이보다 낮을 것임.

본 결과, HS 6단위(437개) 기준으로 304개(234개, 70개) 품목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남.<sup>19)</sup>

- 한편 한국의 비교열위 품목군(제3품목군)은 대략 9.2%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일부 농산물 품목의 높은 관세율 때문이다.
- o 한국의 제3품목군에 농산품인 기타 전분(HS 1108.19), 견과류(2008.19) 등이 포함되는데 이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520.75%와 46.67%임.
- o 다른 품목은 대부분 섬유산업 등으로 조사됨.

부표 1. 한국의 제1품목군 산업구성

	산 업	개 수	비 중
1	섬유제품 제조업	179	17.2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70	16.3
3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37	13.1
4	1차금속제조업	117	11.2
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65	6.2
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49	4.7
7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8	4.6
8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43	4.1
9	음식료품 제조업	37	3.5
10	전자기계 및 장비 제조업	36	3.5

주: 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 3)를 이용하였음.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2. 중국의 제1품목군 산업구성

	산 업	개 수	비 중
1	섬유제품 제조업	405	18.5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319	14.6
3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2	10.6
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64	7.5
5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38	6.3
6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2	6.0
7	1차금속 제조업	101	4.6
8	음식료품 제조업	98	4.5
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8	3.6
1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6	3.5

주: 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 3)를 이용하였음.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19) ECFA에 제시되어 있는 HS 2007버전을 HS 1992버전으로 변환한 후 비교하였음. 한편 중국이 대만에 양허한 HS 8단위의 품목을 HS 6단위로 변환하여 살펴봤기 때문에 세부품목에 따라 실제 비교우위 수준은 다를 수 있음.

부표 3. 일본의 제1품목군 산업구성

	산 업	개 수	비 중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386	22.8
2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14	18.6
3	1차금속 제조업	184	10.9
4	섬유제품 제조업	136	8.0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16	6.9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89	5.3
7	전자기계 및 장비제조업	84	5.0
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61	3.6
9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7	3.4
1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6	3.3

주: 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 3)를 이용하였음.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4. 한국의 제2품목군 산업구성

	산 업	개 수	비 중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08	20.8
2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90	17.3
3	1차금속제조업	85	16.4
4	섬유제품 제조업	36	6.9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	6.4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0	5.8
7	전자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5.8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6	5.0
9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13	2.5
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	2.3

주: 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 3)를 이용하였음.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5. 중국의 제2품목군 산업구성

	산 업	개 수	비 중
1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99	23.8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71	20.4
3	1차금속 제조업	100	11.9
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7	5.6
5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39	4.7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6	4.3
7	전자기계 및 장비제조업	32	3.8
8	섬유제품 제조업	31	3.7
9	음식료품제조업	25	3.0
10	가구 및 기타 제조업	23	2.7

주: 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 3)를 이용하였음.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6. 일본의 제2품목군 산업구성

	산 업	개 수	비 중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96	30.0
2	섬유제품 제조업	53	16.6
3	1차금속제조업	38	11.9
4	기타	18	5.6
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3	4.1
6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3	4.1
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2	3.8
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	2.8
9	가구 및 기타 제조업	8	2.5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8	2.5

주: 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 3)를 이용하였음.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7. 한국의 제3품목군 산업구성

	산 업	개 수	비 중
1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	19.3
2	섬유제품 제조업	126	17.2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60	8.2
4	가구 및 기타 제조업	47	6.4
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40	5.5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4	4.7
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	4.5
8	1차금속제조업	32	4.4
9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31	4.2
10	음식료품제조업	24	3.3

주: 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 3)를 이용하였음.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8. 중국의 제3품목군 산업구성

	산 업	개 수	비 중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79	14.9
2	음식료품제조업	67	12.6
3	1차금속제조업	56	10.6
4	농축산업	50	9.4
5	섬유제품 제조업	45	8.5
6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	4.0
7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0	3.8
8	기타광업	19	3.6
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8	3.4
10	기타	16	3.0

주: 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 3)를 이용하였음.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9. 일본의 제3품목군 산업구성

	산 업	개 수	비 중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89	19.1
2	1차금속 제조업	61	13.1
3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58	12.5
4	섬유제품 제조업	50	10.7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1	6.7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4	5.2
7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	4.7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7	3.7
9	전자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	3.2
10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4	3.0

주: 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 3)를 이용하였음.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10. 한국의 제4품목군 산업구성

	산 업	개 수	비 중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69	19.3
2	음식료품제조업	303	12.4
3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24	9.2
4	농축산업	188	7.7
5	섬유제품 제조업	165	6.8
6	1차금속 제조업	133	5.5
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7	4.4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85	3.5
9	가구 및 기타 제조업	80	3.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78	3.2

주: 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 3)를 이용하였음.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11. 중국의 제4품목군 산업구성

	산 업	개 수	비 중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68	20.6
2	음식료품제조업	205	15.8
3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47	11.3
4	농축산업	102	7.9
5	1차금속제조업	101	7.8
6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2	4.8
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8	4.5
8	기타	41	3.2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4	2.6
10	섬유제품 제조업	30	2.3

주: 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 3)를 이용하였음.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12. 일본의 제4품목군 산업구성

	산업	개수	비중
1	음식료품제조업	338	14.5
2	섬유제품 제조업	273	11.7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70	11.5
4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1	9.9
5	농축산업	184	7.9
6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12	4.8
7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03	4.4
8	1차금속 제조업	84	3.6
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83	3.6
1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4	3.2

주: 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SIC Rev. 3)를 이용하였음.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

부표 13. 한·중·일 3국의 양국 간 수출 상관계수 추이

연도	SITC 1단위			SITC 3단위		
	한·일	한·중	일·중	한·일	한·중	일·중
1985	0.829	-0.102	-0.267	0.293	0.022	-0.047
1986	0.732	0.064	-0.234	0.423	0.069	-0.051
1987	0.753	0.651	0.131	0.532	0.256	0.016
1988	0.801	0.728	0.265	0.550	0.272	0.019
1989	0.791	0.815	0.353	0.472	0.342	0.034
1990	0.818	0.839	0.420	0.443	0.333	0.070
1991	0.868	0.818	0.453	0.471	0.323	0.085
1992	0.884	0.641	0.285	0.551	0.341	0.009
1993	0.905	0.573	0.299	0.636	0.282	0.026
1994	0.938	0.541	0.336	0.676	0.252	0.051
1995	0.967	0.579	0.447	0.761	0.238	0.123
1996	0.973	0.575	0.498	0.757	0.229	0.141
1997	0.967	0.568	0.501	0.725	0.220	0.157
1998	0.963	0.632	0.568	0.675	0.235	0.185
1999	0.977	0.686	0.635	0.730	0.346	0.233
2000	0.982	0.714	0.704	0.757	0.429	0.280
2001	0.982	0.767	0.755	0.736	0.478	0.263
2002	0.989	0.803	0.803	0.721	0.541	0.251
2003	0.992	0.851	0.856	0.743	0.544	0.245
2004	0.993	0.88	0.891	0.744	0.551	0.267
2005	0.991	0.901	0.903	0.732	0.536	0.255
2006	0.989	0.915	0.906	0.726	0.531	0.250
2007	0.989	0.921	0.904	0.702	0.529	0.232
2008	0.985	0.924	0.91	0.629	0.509	0.238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